

국제이주여성의 이중 가치규범 양상: 일본 뉴커머 한국인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미*

요약

최근 들어 일본 사회에서는 뉴커머New-Commer가 증가함에 따라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뉴커머들의 이동 배경 및 목적, 삶의 모습 등 개개인의 경험적, 인격적, 관계의 다양성이 간과된 채 당장 눈앞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커머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중 가치규범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선택이 변화하는 과정을 다면적인 개념의 가치규범에 대한 접근과 문화 적응의 질적 단계에 따른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들의 가치 규범이 주류사회의 문화에 적응, 동화되어 가며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동화 양상을 질적 단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행동과 인지 단계에서는 주류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감정까지는 주류사회와 동일시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규범에 있어서 자문화의 가족관계 안에서 보이는 중층적인 가치규범은 전통적인 가치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과 함께 새로운 사회로의 이동과 이주 후 타문화

*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i00003@hanmail.net

에서의 정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타문화의 가치규범 수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식’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를 보임으로서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통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집단에서 가지는 인간관계 관련 가치규범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이 부분에서 주류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이들이 가지는 이중 가치규범에 의한 갈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사회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 후 자문화 속에서 습득한 가치 규범과 새로운 사회의 가치 규범을 가진 타문화의 환경 속에서 충돌과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타문화의 적응 단계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문화 적응의 단계를 결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중 가치규범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측면에서 다면적인 가치 규범 또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각 가치규범의 질적 단계의 측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문화 동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국제이주, 뉴커머, 이중 가치규범

I. 들어가며

오늘날 세계는 노동이주, 국제결혼, 유학, 해외 파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경을 넘어 타 사회로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경계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와 더불어 일본 사회에서도 다문화화·다민족화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 통합의 문제와 외국인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단일민족 신화를 가지고 있던 일본 사회에서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뉴커머New-Commer의 증가에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을 일컫는 ‘뉴커머’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뉴커머의 일본 생활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제안을 공생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미야지마다카시 宮島喬, 2003; 가와무라치즈코 川村千鶴子, 2008; 2009).

초기의 뉴커머들은 대부분 이주 목적을 달성한 이후 자국으로 귀국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주 사회에서의 취업과 결혼 등으로 장기체류가 증가하면서 뉴커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뉴커머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정체성 형성 및 갈등에 대한 연구(후쿠오카야스노리 福岡安則 · 쓰지야마유키코 辻山ゆき子, 1991; 고길희, 2001; 세키구치토모코 関口知子, 2003)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뉴커머자녀들의 문제 및 제안(시미즈히로요시 志水広吉 · 시미즈무쓰미 清水睦美, 2001; 오타하루오 太田晴雄, 2005; 미야지마다카시 宮島喬 · 오타하루오 太田晴雄, 2005)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뉴커머 자녀들의 정체성과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뉴커머가 급증하면서 야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뉴커머’라는 하나의 틀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이동 배경 및 목적, 삶의 모습 등 개개인의 경험적, 인격적, 관계적 다양성이 간과되고 있다. 즉,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문화에서 습

득한 다양한 개인적 배경이 있고 이들이 이주하는 사회에는 그 사회의 주류 계급이 만들어 낸 다양한 환경적 배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타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주민과 타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 가치규범에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 적응의 단계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그 적응 양상에는 질적 단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행동을 습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때도 있고, 문화 문법을 체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심리적 적응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 이동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이중 가치규범에 대한 대응은 이주하는 사람들의 타문화 사회와의 통합과 공생의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커머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중 가치규범에 대한 이들의 의식과 선택의 변화 양상을 가치규범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과 문화 적응의 질적 단계에 따른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의 개요

뉴커머 한국인이란 일본에 새롭게 들어온 한국인을 칭하는 것으로,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코리아¹⁾과 다르기 때문에 올드커머Old-Commer라고 불리는 이들과 구별

해서 부르는 호칭이다. 시기적으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이후에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로, 돈벌이·유학·취학·결혼등 이동 경위와 목적이 다양하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²⁾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수는 2,134,151명이며, 그 가운데 한국·조선인 565,898명으로 전체 2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표 1>. 재류자격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영주자’³⁾가 395,234명으로 69.8%를 차지하고 있고, 이하 ‘영주자’ 58,082명, ‘유학’ 27,066명, ‘일본인 배우자’ 19,761명으로 이어진다. 한국인·조선인 가운데에서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17만 명이 뉴커머 한국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에 불법 체류자 약 2만 명을 더하면⁴⁾ 사실상 뉴커머 한국인은 19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2>.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뉴커머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고, 문화적인 차이도 크지 않다(시미즈·시미즈, 2001).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뉴커머 한국인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타문화에 대한 어설픈 이해만으로는 내부의 복잡한 정서의 차이까지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면적·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1) 여기에서 재일코리언은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을 함께 일컫는 말로 사용한다.

2) 2011년 8월 19일 공표

3) 특별영주자는 재일코리언을 칭한다.

4) 「本邦における不法残留者数について」(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통계, 2010년 1월 1일 현재)

〈표 1〉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수의 추이 (각 연도 말 현재)

국적 (출신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수	1,973,747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중국	487,570	519,561	560,741	606,889	655,377	680,518	687,156
구성비(%)	24.7	25.8	26.9	28.2	29.6	31.1	32.2
한국·조선	607,419	598,687	598,219	593,489	589,239	578,495	565,989
구성비(%)	30.8	29.8	28.7	27.6	26.6	26.5	26.5
브라질	286,557	302,080	312,979	316,967	312,582	267,456	230,552
구성비(%)	14.5	15.0	15.0	14.7	14.1	12.2	10.8
필리핀	199,394	187,261	193,488	202,592	210,617	211,716	210,181
구성비(%)	10.1	9.3	9.3	9.4	9.5	9.7	9.8
페루	55,750	57,728	58,721	59,696	59,723	57,464	54,636
구성비(%)	2.8	2.9	2.8	2.8	2.7	2.6	2.6
미국	48,844	49,390	51,321	51,851	52,683	52,149	50,667
구성비(%)	2.5	2.5	2.5	2.4	2.4	2.4	2.4
기타	288,213	296,848	309,450	321,498	337,205	338,323	334,970
구성비(%)	14.6	14.8	14.8	14.9	15.2	15.5	15.7

출전: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2011년 8월 19일 공표)

〈표 2〉 재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수의 추이 (각 연도 말 현재)

재류자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
총수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2,134,151	100
영주자	801,713	837,521	869,986	912,361	943,037	964,195	45.2
일반영주자	349,804	394,477	439,757	492,056	533,472	565,089	26.5
특별영주자	451,909	443,044	430,229	420,305	409,565	399,106	18.7
비영주자	1,209,842	1,247,398	1,282,987	1,305,065	1,243,084	1,169,956	54.8
정주자	265,639	268,836	268,604	258,498	221,923	194,602	9.1
일본인 배우자 등	259,656	260,955	256,980	245,497	221,771	196,248	9.2

〈표 2〉 재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수의 추이 (각 연도 말 현재) (계속)

재류자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구성비 (%)
유학	129,568	131,789	132,460	138,514	145,909	201,511	9.4
가족체제	86,055	91,344	98,167	107,641	115,081	118,865	5.6
연수	54,107	70,519	88,086	86,826	69,395	9,343	0.4
인문지식·국제업무	55,276	57,323	61,763	67,291	65,209	68,467	3.2
기술	29,044	35,135	44,684	52,273	50,493	46,592	2.2
취학	28,147	36,721	38,130	41,313	46,759		
기능	15,112	17,869	21,261	25,863	29,030	30,142	1.4
영주자의 배우자 등	11,066	12,897	15,365	17,839	19,570	20,251	0.9
기업내 전근	11,977	14,014	16,111	17,798	16,786	16,140	0.8
홍행	36,376	21,062	15,728	13,031	10,966	9,247	0.4
교육	9,449	9,511	9,832	10,070	10,129	10,012	0.5
교수	8,406	8,525	8,436	8,333	9,840	8,050	0.4
기타	209,964	210,898	207,380	214,278	210,223	240,486	11.3

※ 2010년도부터 일반영주자를 영주자로 표기하고, 취학을 유학 카테고리에 포함시킴
출전: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2011년 8월 19일 공표)

2. 인터뷰 대상자 개요

〈표 3〉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	연령	일본 체재기간	입국 배경	가족관계
N씨	47세	18년	유학생인 남편과 선을 보 고 결혼	남편, 아들1(고등학생), 딸 1(중학생)
O씨	42세	5년	남편이 연구원으로 일본에 입국	남편, 아들1(중학생)
V씨	46세	11년	선교사인 남편과 같이 입 국	남편, 딸1(고등학생), 아들1(중학생)

국제이주여성의 이중 가치규범 양상: 일본 뉴커머 한국인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107

3. 조사 방법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하나의 틀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개개인 삶의 심층적인 부분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주 경위, 주류사회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타문화 경험과 삶을 영위하고 있는 뉴커머 한국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 면담을 하면서 생활 모습을 관찰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개인 면담,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함과 동시에, 자료들을 코딩하는 과정을 통해 유사한 주제들을 범주화함으로써 다양한 사실들에 통합적 특성을 부여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이론적 배경

1. 가치 규범에 관한 이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성장한 사회에서 개인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자연적인 가치를 체득하고, 가치의 존중 의무를 습득한다. 다양한 이유로 타문화 사회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형성된 기존의 가치 체계와 새로운 가치 체계가 충돌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문화의 가치규범과 타문화의 가치규범이 다른 경우, 어느 한 쪽을 선택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또는 사회 집단과의 관계 속

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가치 규범은 정치·문화·도덕 등 사회 전체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중심 관념에 근거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 규범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집단, 사회, 국가로 이동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던 자문화에서 형성된 가치규범과 타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규범의 혼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타문화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존재하는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혼동을 본 논문에서는 ‘이중 가치규범’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는 모국과의 관계 및 이주국과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 낯선 장소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주 생활은 언어적, 문화적, 정서적인 자아의 탈맥락화(dislocated-self)와 함께,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아길라Aguilar, 2002). 즉, 국가 이동을 통해 이주한 사람들은 문화의 이중 가치규범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을 항상 요구 받게 되는 것이다.

가치 규범은 개인적, 사회적, 자연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가치규범은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여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면적인 가치규범을 변수로 두 문화의 이중 가치규범에서 구축되어가는 정체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범주화된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규범, 문화에 대한 가치규범, 사회와 집단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규범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 규범은 국가와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인식과 감성이다. 이것에 의해 형성되는 주체성이, 국가 정체성, 혹은 민족정체성이다. 민족은 일정한 문화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공동체를 말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감각·감정·태도이며, 문화적인 독자성의 의식이고, 집단적 귀속감이다(나카타니타케시中谷猛, 2000). 토지, 혈연관계, 언어의 공유, 종교, 전승, 사회 조직 등이 그 기준이 되지만, 일본어의 ‘민족’이라는 단어에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적 공동체 색채가 진한 ‘국가’의 개념과, 동일한 문화 습속이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민족’의 개념이 구별되지 않고 공존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민 = 민족’과 같이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일 민족 신화를 가지고 있던 한일 양국 모두 세계화·국제화에 따라 다른 민족과의 공생이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러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와 관습, 도덕 등 문화적 가치 규범은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과의 관련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뱅크스Banks는 문화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말한다. 또한 개인은 인종, 성별, 지역, 언어, 장애 등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뱅크스 Banks, 2009).

한편 파딜라Padilla는 문화적 정체성을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과 민족에 대한 충성Ethnic Loyalty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문화적 인식은 집단의 구성원이 문화에 대해 가지는 지식으로, 언어, 역사, 예술,

음악 등 문화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편, 민족에 대한 충성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 민족 집단과의 관계 등을 통해 형성되는 바, 따라서 민족 지향적인 양상을 띤다. 즉,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문화와 민족에 대한 동일시와 귀속감인 동시에 집단에 대한 연대감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립되는 자기 개념이다 (파딜라 Padilla, 1980). 한편 스즈키鈴木一代는 국가 이동의 문화적 정체성 연구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문화에 속해있다는 감각·의식’ ‘문화적인 귀속감’이라고 설명한다. 국가 이동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거주 국가(현재 거주지 환경, 거주지역의 선택, 거주 상태의 안락함 등), 부모의 성별, 부모의 문화 결합 (각 문화·사회 가운데 국제 아동의 위치 부여), 국제 아동의 외관적인 특징, 가정환경 (부모의 특성, 부부 관계, 형제, 언어 사용, 경제 상태, 미래 계획 등), 학교 환경 등의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두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이주국의 두 언어를 모두 습득하고 이주국이 국가 이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주자는 두 문화를 항상 의식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평생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스즈키이치요鈴木一代, 2004).

끝으로 사회와 집단의 인간관계 관련 가치 규범은 집단과의 조화가 요구되는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한다.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에 의해 생기는 자기 개념의 일부를 의미한다(타펠Tajfel, 1978: 8).

타펠과 터너Tajfel & Turner는 이주자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사

회적으로 별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아 존중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대처 방식을 설명한다. 개인은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편견이 위협으로 느껴지는 경우, 자아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를 하는데 대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에서 떠나려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다. 즉,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으로 이동해 가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다. 다음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주류 집단을 새로운 차원에서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집단의 특성을 다시 평가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갖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창조의 방법을 들 수 있다(타펠과 터너Tajfel & Turner, 1986:8).

페란테Ferrante에 따르면 재사회화는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가치와 행동 양식을 버리는 탈사회화 과정과 새롭고 더 적절한 가치와 규범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재사회화 과정은 초기에는 제도와 같이 외형적이고 단순한 영역에서 시작해서, 규범·가치·의식과 같은 내면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간다고 말한다(페란테Ferrante, 2003).

이상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개념의 가치 의식에 의해 개인의 복합적인 자아가 형성된다. 특히 국가 이동과 이주를 통해 접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은 복합적인 자아를 다각적으로 자극하게 되며 이주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재사회화를 이루게 된다.

2. 문화 적응에 대한 이론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국제결혼 등에 의한 문화적인 접촉이 증가

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의 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문화 적응 연구자들은 다양한 적응 모델과 유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타문화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타문화와 자문화의 이중 가치규범 사이에서 ‘선택’과 ‘배제’의 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변화 형태를 보인다. 고지마마사루小島勝는 ‘일본 문화’를 가진 일본인이 이동을 통해 현지 문화를 접할 때, 어디까지 일본 문화를 고집하고 이를 포기하는가 하는 관점, 또는 그 현지 문화에 동화하는가, 분리되는가하는 관점으로 일본 문화의 변화 형태를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우선, 일본 문화를 고집한 채로 현지 문화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지형(격리형)’, 일본 문화의 고집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동화에 대한 압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분열형(절충형)’, 일본 문화를 포기하고 현지 문화에 동화해가는 ‘동화형’, 마지막으로, 일본 문화도 버리고 현지 문화에도 친숙해지지 않으면서 ‘제3의 문화’를 구성하는 ‘코스모폴리턴cosmopolitan 형’ 이다 (고지마마사루 외小島勝外, 1990).

고지마의 문화 변화 형태 이론에 이어 베리Berry의 문화적응 모델도 모국의 문화적 가치의 특성을 유지하느냐 여부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의 여부를 두 개의 축으로 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문화적응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베리Berry, 1997). 이 연구에서는 적응 전략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sation’로 제시한다.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주국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또한 가치 있다고 보는 태도를 가리킨다. 또한 모국의 문화적인 가치는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류사회와의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를 ‘동화’라고 하며, 모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는데 비해 주류사회와 관계가 없는 경우를 ‘분리’, 마지막으로 모국의 문화 유지와 주류사회와의 관계에 모두 관심이 없고, 둘 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화’로 구분하여 문화적응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변화 형태와 관련하여 미노우라야스코箕浦康子는 질적 단계에 의한 문화 동화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노우라는 문화 동화 과정을 행위의 형태를 습득하는 단계와 의미 공간인 문화 문법을 체득하는 단계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네 가지 단계로 타문화 동화 상태를 설명한다(미노우라야스코箕浦康子, 1991).

- (1)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에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다는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 타문화에 와서도 항상 자국인과 교제하고, 현지인의 대인 관계 행동의 관습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
- (2) 타문화 사회에 속한 사람의 방식이, 자문화 사람과 다른 것을 알고는 있지만, 타문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지 않거나, 행동할 수 없는 경우.
- (3) 행동·인지에서 타문화 사회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감정의 움직임은 자문화의 형태에 지배되고 있는 경우.
- (4) 행동·인지·정서 모든 면에서 타문화 사회의 문화 형태를 받아들인 경우.

이상에서 살펴 본 고지마, 베리, 미노우라의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의 변용 형태와 그 과정에서 보이는 타문화와의 접촉 양상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각 유형의 특징을 보면, 먼저 ‘유지형’은 이동 후에도 행동, 인지, 감정 모든 면에서 자문화에서 형성된 가치규범에 강한 집착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절충형’은 행동 또는 인지면에서 타문화의 가치 규범을 받아들이지만, 감정면에서 모국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동화형’은 행동, 인지단계에서의 타문화 가치 규범의 수용과 함께 더 나아가 감정 단계까지 타문화의 가치 규범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행동한다. ‘주변화’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어느 쪽 문화에도 구애받지 않고 문화적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이중 가치규범에 의한 충돌과 갈등의 양상을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 적응의 문화 변화 형태와 그 질적인 단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타문화 접촉 양상

유형	행동 · 인지	감정
유지형(분리)	자문화	자문화
절충형(분리)	타문화	자문화
동화형(동화)	타문화	타문화
주변화 (코스모폴리턴)	비소속문화 ⁵⁾	비소속문화

고지마(1990), 베리(1997), 미노우라(1991)의 연구를 토대로 필자 작성

5) 여기에서 ‘비소속문화’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어느 쪽 문화에도 구애받지 않고 문화적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음으로써 어느 문화에도 소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IV. 뉴커머 한국인 여성의 이중 가치규범 양상

뉴커머 한국인이 교육을 받았던 7,80년대 한국은 국가이념을 기반으로 한 국민적 자질 함양을 교육 목표로 민족의식을 강조한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배경 아래 형성된 국가정체성은 국제이동으로 글로벌화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문제를 던져 주었다.

한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도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인구 이동은 도시화와 핵가족화라는 사회 변화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전통 의식과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의식이 공존하는 중층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 안에서의 중층적인 가치 규범은 가족 관계에서 한국 여성들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국제이동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이동을 통해 뉴커머 한국인 여성은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함께 가치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는 이중 가치 규범의 양상을 뉴커머 한국인 여성의 사례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 규범 양상

연구 대상자인 뉴커머 한국인 여성이 교육을 받은 70년대부터 80년대 한국의 경우 국가정체성의 성격은 ‘민족주의’로 표현된다. 이 시대는 국가 정책에 의해 국가정체성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주체성을 강조한 시대로 뉴커머 한국인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교육에 의해 국가·민족에 대한 강한 의식이 국가정체성으로 형성되었다.

국가정체성은 특수한 상황이나 극한 환경에 놓여 지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타문화로 이동한 사람에게 국가정체성은 다른 문화로의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편견·차별이라는 극한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규범을 의식시키기에 충분한 자극적 요소라 할 수 있고, 타문화에서의 가치규범은 ‘생존’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N씨는 일본에서 체류한 지 18년이 된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남편과 맞선으로 만나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일본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공부가 끝나자 일본에서 한국 식당과 한국 식품 매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업이 성사되지 않았고, 가게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 결국 N씨 가족은 통칭명⁶⁾을 사용함으로써 차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N씨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통칭명을 사용하였고, 지역 사회에서도 통칭명을 사용하였다. N씨는 자신과 가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람과도 일본 사람과도 사귀는 것을 꺼려했다. 인터뷰 조

6)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귀화를 했거나 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통칭명(일본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국제결혼, 사업상, 사용상의 편의, 차별 등 다양한 이유로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다.

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도 현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주변을 살피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다.

N씨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했다. 책상 속에 ‘죽어’라고 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 사건 때문에 학교에 찾아갔을 때 출석부에 통칭명과 함께 한국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우리가 왜 통칭명을 쓰는데…… 출석부에 한국 이름을 같이 쓸 거 같으면 뭣하러 통칭명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지매를 한 거라고요.”

N씨는 이지매의 원인이 한국 사람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은 N씨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자녀들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의식에서도 나타났다.

“아이들은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감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계속 살 거면 귀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한국에 가면 정서가 안 맞아서 살기 어려울 거 같아요.”

“사는 데 국적은 관계없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특별히 해 준 것도 없고…….”

N씨는 주류사회에 대한 자녀들의 동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은 N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정착하려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타펠과 터너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별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 부정적인 고정 관념과 편견이 위협으로 느껴지는 경우, 자아 존중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 방법의 한 가지로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를 말한다. 이것은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에서 떠나려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다. 즉,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에 동화되는 것이다 (타펠과 터너, 1986). 오늘날 세계화·다문화화가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는 아직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N씨의 사례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차별과 갈등에 대한 정착 전략으로 타펠과 터너가 언급한 주류문화의 가치규범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N씨 자신의 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회의적인 의식이나 자녀의 주류문화 동화를 받아들이던 모습과는 달리, 강한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어휴, 전 귀화할 생각 없어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뉴커머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국가정체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달리, N씨의 국가에 대한 의식은 회의적인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귀화’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이전의 ‘국적이 필요 없다’고 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N씨의 경우, 타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생긴 차별과 갈등의 경험은 국적에 대한 집착을 ‘배제’하는 모습과 함께, 타문화의 가치규범을 수용하려는 의식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귀화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임으로써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던 국가정체성이 표면화된다. 즉 국가정체성은 의식적 행동의 단계까지는 ‘배제’할 수 있었지만 감정의 단계까지는 변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문화적 가치규범 양상

뉴커머 한국인 여성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내용 가운데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치규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핵가족화와 함께 부권중심의 호주제 폐지와 국회의 여성가족부 개설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로 인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유교적 고정관념의 붕괴라는 사회현상을 초래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변화 및 개혁과 달리 사회적 통념에 의해 그 변화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가족관계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규범이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오늘날 가족관계 안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뉴커머 한국인 여성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갈등이 국제이동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O씨는 한국에 있을 때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시아버지의 직업 관계상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고, 집안의 대소사도 많았다고 한다. 장남의 며느리인 O씨는 이러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했고, 보수적인 시집의 분위기는 O씨의 시집살이를 더욱 힘들게 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30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남편이 연구원으로 외국에 나갈까 하길래 저야 좋다고 했죠. 시집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관계 안에서의 중층적인 가치규범은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로의 이동을 선택하게 하였고, 이러한 중층적인 가치규범으로부터의 탈피는 타문화의 가치규범 수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사람들의 쿨한 가족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정’이라는 말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특히 며느리들한테는요”

이처럼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은 타문화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정적 차원에서 여전히 ‘한국식’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제가 갑상선으로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암일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다행히 수술하고 괜찮아졌죠. 수술 때문에 아이들 좀 봐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더니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러곤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아들, 며느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필요할 때만 머느리래요.”

머느리라는 위치에 따른 기대와 역할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사회의 가치규범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자신이 힘들 때 시부모의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 속에서, ‘한국식’ 가족관계와 타문화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중 가치규범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통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사회와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관련 가치규범 양상

사회와 집단의 인간관계 관련 가치규범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기도하다. 일본과 한국은 양국 모두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양국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본과 한국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기반은 유교로부터의 개념인 예의라고 할 수 있다. 예의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 양식으로,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행동 규범이다.

일본의 예의는 ‘와(和)’를 중시한다. 일본의 경우, 무사와 일부 부유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

의 등을 자녀에게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게다가 예의범절이나 도덕보다 엄격하게 훈육한 것은 노동이었고, 그것을 가르친 것은 가정이라기보다 지역 사회 ‘공동체’였다(히로타테루유키 広田照幸, 1999). 한국의 유교가 가족을 중시하고 ‘효’를 강조한데 비해, 일본의 유교는 공동체를 중시한 ‘충’을 강조했고 이러한 면에서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즉, 일본의 예절 교육은 공동체를 중시한 ‘와(和)’라는 무언의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한 사회로 이동한 경우, 주류사회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항상 조화를 유지하고,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교사 남편과 같이 일본에 오게 된 V씨에게는 자녀가 두 명 있다. 일본에 처음 왔을 당시 첫째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일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어도 공부하고 일본 생활도 배우고 있었는데, 주변의 일본 아이들이 V씨의 딸을 따돌리는 것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 사람을 통해서, 친구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라는 이유를 듣게 됐다.

일본에서는 친구 사이라도 물건을 빌릴 때 반드시 “빌려줘”라고 말해야 하고, 상대방에게서 “좋아/괜찮아”라는 답을 들은 후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규칙이고 상식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친구 사이라면 깍듯하게 “빌려줘”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거 빌릴게” 정도의 표현이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작은 일상의 감각이나 정서의 차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과 조화를 저해함으로써 이중 가치규범의 갈등이 큰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N씨의 딸이 학교에서 당한 이지메에 대해 N씨는

그 원인을 한국 사람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이지매를 경험한 다른 뉴커머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감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을 때도 반드시 부탁과 승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본의 공원문화에서도 이러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학생인 V씨의 딸은 이제는 오히려 다른 한국 친구가 부탁과 승낙의 절차 없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한다. 즉, 이러한 갈등의 경험은 타문화 가치규범의 습득을 촉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주류 집단과 조화하고자 하는 의식을 형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일상의 감각이나 정서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타문화에 이동한 사람들은 사회와 집단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감각의 다름 혹은 어긋남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뉴커머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중 가치규범과 관련된 이들의 의식과 선택의 변화 양상을 다면적인 개념의 가치규범에 대한 접근과 문화적응의 질적 단계에 따른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규범에 대하여 이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규범은 생태적인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규범의 변화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제 이동이라는 특수 상황은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시키거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갖게 하기도 하였다. 즉, 타문화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규범에 있어서 주류사회에 대한 문화 적응의 동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질적 단계에 의한 동화 양상을 살펴보면, 통칭명의 사용과 같이 행동 단계에서 문화 형태를 받아들인 경우, 자녀의 귀화와 같이 삶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문화 형태를 받아들인 경우와 같이 행동과 인지에서 주류사회의 형태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귀화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규범이 감정 단계까지 주류사회와 동일시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규범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규범에 대한 선택과 양상을 검토하였다. 자문화의 가족관계 안에서 보이는 중층적인 가치규범은 새로운 사회로의 이동을 선택하게 하기도 하였고, 이주 후 타문화에서의 정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은 타문화의 가치규범 수용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한국식’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 모습은 자문화의 가치규범과 타문화의 가치규범을 함께 유지하는 ‘통합’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관련 가치규범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을 볼 수 있다. 이 가치규범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맞지 않아 이중 가치규범의 갈등이 많은 부분이다. 특히 집단과의 조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주 후 개인 혹은 집단 안에서의 경험에 따라 주류사회와의 조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개인적 배경과 이주 후 사회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중 가치규범에 대한 충돌과 갈등은 가치규범의 다면적인 측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타문화 적응의 질적 단계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타문화 사회의 가치규범의 수용에는 타문화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인 위치 확보와 정서적 일치, 감정적인 유대라는 적극적인 측면의 양상도 볼 수 있었다.

기존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론이 한 사람의 적응 양상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는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의 양상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결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달리, 한 사람 안에서의 이중 가치규범이 보이는 양상은 다면적인 가치규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각 가치규범에 대해서도 질적 단계에 따른 다양한 문화동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국제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이동 배경 및 목적, 삶의 모습에 따라 개인마다 경험적, 인격적, 관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주자들과의 조화와 공생을 위해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 太田晴雄(2005). **ニューカマーの子どもと日本の学校**. 国際書院
- 川村千鶴子(2008). **ディアスポラ接触—地域が日本を超えるとき. 「移民国家日本」と多文化共生論**. 川村千鶴子編著. 明石書店
- 川村千鶴子(2009). **移民政策へのアプローチ—ライフサイクルと多文化共生**. 明石書店
- 小島勝外(1990). **国際化社会の教育**. 昭和堂
- 高吉嬪(2001). “在日日本人二世” 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旗田巍と挑戦**—日本. 桐書房
- 志水宏吉・清水睦美(2001). **ニューカマーと教育—学校文化とエスニシティの葛藤をめぐる**. 明石書店
- 鈴木一代(2004). 国際児の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をめぐる研究の課題. 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第4号. 15-24
- 関口知子(2003). 在日系ブラジル人の子どもたち—異文化間に育つ子ども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 明石書店
- 中谷猛(2000). 『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概念に関する問題整理. 立命館法学. 2000年3・4号下巻 (271・272号)
- 広田照幸(1999). 日本人のしつけは衰退したか. 講談社
- 福岡安則・辻山 ゆき子(1991). **同化と異化のはざまで—在日若者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葛藤. 新幹社
- 箕浦康子(1991). **子供の異文化体験**. 思索社
- 宮島喬(2003). **共に生きられる日本へ**. 有斐閣
- 宮島喬・太田晴雄編(2005). **外国人子どもと日本の教育—不就学問題と多文化共生の課題**. 東京大学出版会. 77-96
- Aguilar, F. V. Jr.(2002). Ritual Passage and the Reconstruction of Selfhood in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 F. V. Aguilar Jr. (Ed.), *In Filipinos in global migrations: At home in the world?* (pp.413-451). Quezon City, Philippines: Philippine Migration Research Network and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 Banks, J. A.(2009).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Routledge, Taylor and Francis.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Padilla, A. M. (Ed.).(1980). The Role of Cultural Awareness and Ethnic Loyalty *Acculturation:In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Colorado: Westview Press.

Tajfel, H.(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European Association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by Academic Press (London and New York). In 최운선 2009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민족소속감 탐색 연구: 한일 가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L.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In최운선 2009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민족소속감 탐색 연구: 한일 가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Abstract

The aspects of double value standards in international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case example of Korean newcomer women in Japan

Kim, Sun Mi
(ChungAng University)

As New-comers are growing in Japan society recent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the institutional strategy for living together with multi-races and there are many studies which suggest actively proper immigration policies. In these earlier studies, however, they focused on just the solutions to the faced current problems, while overlooking the varieties of New-Comers' experience, person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such a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ir immigration and their lifestyle. Thus, in this study, targeting Korean immigration women in Japan, the changes of their ideas and choices on the double value standards were examined through approach to the variety of concepts of value standards and the qualitative analysis of steps of their enculturation.

First, it shows that the value standards of their view about nation and race are being adjusted and assimilated to the mainstream culture. If we look into the aspects of their assimilation in the process of this in the respect of qualitative steps, we can fin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the mainstream society in the steps of behavior and recognition but they felt that it was difficult to assimilate to the mainstream society emotionally.

Second, in terms of the value standard regarding family relationship, the

layered value standards appearing in the family relationship, as well as their perception to stray from the traditional value standards in the family relationship, played an important role when deciding to migrate into a new society and then to settle in a heterogeneous culture; and influenced on the acceptance of value standard in heterogeneous culture. On the other hand, by showing expectations for 'Korean' family relationship, there comes cultural 'integration' aspect of absorbing the value of mainstream society while maintaining the cultural values of motherland.

Finally, since the value standards of human relationship in the society and groups are in close connection to the daily life, they tend to cause problems. Especially most of them don't fit with the emotion of the mainstream society, thereby they tend to have many conflicts on the double value standards.

Since the people who immigrate into new society have individual various backgrounds, they certainly tend to have conflicts in the circumstances between their own culture and the new culture which has different value standard and social value standards from their own culture. It also shows that there are other aspects in the adjustment to new culture in quality. While in the earlier studies they proposed the steps of adjusting themselves to other culture synthetically and resultantly, this study finds out which aspects of the individual double values they have and which aspects of the multi-faced value standard they also have in this respect. It also examines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culture assimilation shown in each qualitative step of value standards.

Key words : immigrant, New-comers, double value standards

투고신청일 : 2011. 10. 15

심사수정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23